



### 위기시대에서 살아남기와 비상대책위원회

칼럼

김윤호 주필·행정학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가 백성, 국민, 인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내가 가끔 인용하는 정치학에서의 '장(場)의 이론(Theory of Place)'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독일의 심리학자인 레빈(K. Lewin)은 장의 이론에서 인간의 심리상태인 태도는 고정적이거나 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사실은 서로 상충되는 힘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동적인 세계에서 균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뿐이다. 인간의 행동은 가변적(可變的)이고 개인의 특성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결정될 수 있다. 행동은 촉진하려는 힘과 억제하려는 힘 속에서 조정된 결과라고 주장한다.

심리학에서 환경, 현재 상황을 의미했던 장(場)은 정치학에 들어오면서 조직, 정치체제라는 거대담론으로 의미가 전이(轉移)되었다. 삼각형 안에서는 풍물(농악)을 하기 어렵다고 비유(比喩)하면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인간이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지만, 환경이 인간을 지배하기도 한다. 환경이 거대 사회 조직이나 정치체제를 의미할 때는 인간은 무력감과 소외감을 갖 수 밖에 없다. 평등 이념을 기초로 조직화된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에서 개인이 자유를 주장해 보아도 무력할 수밖에 없다. 자유 이념을 기초로 조직화된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에서 평등의 이념은 부차적이다.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국가들도 자유와 시장경제를 가미해 나가고, 자유를 강조하는 민주주의 국가들도 심각한 빈부 격차와 불평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복지과 사회 안전망 등 평등의 장치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평등은 자유를 보완해 나가고, 자유는 평등을 보완해 나가서 서로 약점과 부족한 부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역사 발전의 결과이다.

세상을 살아가자면 처음 겪는 일, 처음 보는 일이 많다. 지금 세계 10위권의 강소국(強小國)인 대한민국은 비상(非常) 상황, 비상 시국이다. 비상은 정상, 통상, 보통이 아니라는 뜻이다. 나라의 운명과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0%~70%대를 유지해야 할 취임 초반인데도 20%대에서 맴돌고 있고, 부정 평가가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24만표라는 역대 최소 표차로 당선된데다가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거의 3배가 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사실상의 탄핵'을 당했다는 의미가 된다. 대통령과 정부의 위기가 아니라 나라의 위기고, 국민의 불행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와 정당들도 모두 비상상황이다. 정권을 교체한 여당 국민의힘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보다 적은 국회의원으로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를 운영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이 판국에 전당대회에 선출된 이준석 당대표를 몰아내느라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으나, 법원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전제 조건인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버렸다.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당원 당규를 고쳐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다고 한다. 처음 보는 일이다. 설상가상으로 옆치락뒤치락하던 정당 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 선거에서 저서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기고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자치선거에서도 참패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기사회생(起死回生)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선(大選)에서 지기는 했지만, 당원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8월 28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변화와 진보의 깃발을 들고 앞장 서야 할 정의당도 국민과 지지층에게 실망을 주어서 계속되는 선거 참패의 늪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로 간신히 연명(延命)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세 정당이 모두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하여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거의 세 배가 되고 있다. 우리 헌정사, 정당사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다.

개인도 한 평생을 살아가자면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고 상처 받고 신음하면서 흔들리는 위기를 여러 차례 맞는다. 눈 앞이 캄캄한 절망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비상한 결단과 비상한 행동이 요구된다. 비상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크고 작은 도전(위기, 문제)에 적절한 응전(행동, 대책)을 못하면 개인도, 조직도, 국가도, 민족도, 문명도 쇠락(衰落)과 소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은 만고(萬古) 불변의 진리이다.

###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공감대 절실

이정민 순천경찰서 왕조지구대

기고



최근 보행자의 안전에 중점을 둔 도로교통법이 2022. 7. 12자로 개정되었다. 우리나라 보행자 교통사고의 사망자 수는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에 이른다. 이는 그만큼 보행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수치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기존 '보행자의 통행할 때만 일시정지'에서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의 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일시정지한 차량 뒤에서 경적을 울린 경우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새로이 도입된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차마보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이다. 차량에게 보행자가 지나갈 경우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가 부여되고, 필요할 경우 차마의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 가능하다. 이 또한 위반시 승용차의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우리는 누구나 보행자가 될 수 있다. 경찰에서도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보행자 보호 위주로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으나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행자 스스로 안전을 지키려는 인식전환과 운전자 본인도 보행자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15초의 기다림으로 보행자 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 피싱 사기 문자 주의해야

기고

김창희 곡성경찰서 경무계장



정부 기관의 홍보에도 금융사기 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수법도 진화하여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정부 지원금과 서민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루에 여러 건 날아오는 대출 안내 문자와 자영업자 상대로 하는 정부지원금 문자,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둔갑해 취업이 어려운 2030세대를 대상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의 내용으로 현혹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 이에 속은 청년들도 교묘해진 피싱 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은행, 정부기관에서는 먼저 연락하여 개인정보 등을 묻지 않으므로 무시하거나 ▲문자를 보낸 전화번호가 아닌 경찰청(112)이나 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면 ▲해당 출금 은행에 지체없이 지급정지 신청하고 ▲경찰서 방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받아 ▲지급정지 신청한 해당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출 과정에서 필요하다며 설치하라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지워야 한다. 피싱 사기 피해 방심은 금물! 예방만이 최선이 방법임을 잊지 말자.

### 추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 어때요?

안재용 담양소방서 고서119안전센터 소방교

얼마 뒤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추석은 한해 농사의 결실, 조상의 제사, 가족 모임이라는 의미가 있었다면 요즘 추석은 오랜만에 가족들을 모두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추석연휴에 풍성하고 즐거워야 할 자리에 관심부족으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다.

2022. 8.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시민들의 피난요령 인식과 아파트 피난방송이 미흡하여 화재규모대비 인명피해가 다수발생(경상 2. 단 순연기 흡입 16)하였다. 최근 사례와 같이 고층건물이 많은 요즘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엄청나다. 우리가 평안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기 위해 화재 초기에 큰 힘을 발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부모님 댁에 선물 하는 것은 어떨까?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 발생 시 경보를 울려 대피하도록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화재의 18.9%(12만1006건 중 2만 2889건), 사망자는 전체화재 사상자의 40.3%(1016명 중 410명)가 발생했다고 한다. 주택화재는 다른 화재에 비해 면적당 가연물의 양이 많아 연소 확대가 급격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지만, 주택용소방시



설 설치가 범재화(2017년 2월 4일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공간인 관계로 설치 지도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에 대한 지속적 홍보로 화재의 피해를 막은 사례가 뉴스에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형 건물이나 아파트 등에는 소방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소방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를 하고 있어 소방시설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건축물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집은 안전할 거야"라는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안전에 익숙해져서 사고의 위험에 대해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하는 '안전불감증' 때문에 피해를 더 크게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사태 속에서 법률 개정과 홍보만으로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온전히 일상속에 자리 잡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주택 거주자의 자발적인 관심과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만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건전지로 작동돼 전기배선이 따로 없고 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기고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